

제 31 시의회 선거구

Ricardo A. Brown (D)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도 브라운입니다. 저는 공인 회계사입니다. Brown Young & Co.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직에 출마했습니다.

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1) 샌디에 피해를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FEMA (연방재난관리청)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
- (2)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포함해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 (3) 노인들에게 우수한 돌봄 서비스와 여가 기회 널리 제공.
- (4) 현역 군인을 위한 더 포괄적인 서비스.

그리고 선출된다면 다음 문제도 해결할 것입니다:

- (1)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
- (2) 지역의 각 세부 구역에 지역단체들에 의해 조직된 시민순찰대를 창설.
- (3)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국이 지역 하수구 청소에 더 신경 쓰게 하기.

제가 갖춘 경영 및 사업 기술이 저를 이 직책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인 이유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과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압니다. 노동자 가정들에게 정부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학교와 더 안전한 거리가 필요하고 그들이 마음을 놓으려면 자신의 자녀와 은퇴한 부모님이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시의원직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가 받는 서비스를 개선합시다. 질문이 있거나 제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brown4ny.com 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선거일에 꼭 투표하십시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 31 시의회 선거구

Michael R. Duncan (D)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던컨입니다. 저를 제 31 시의회 선거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십시오.

저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났고 1978 년부터 뉴욕을 저의 집이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 버룩 칼리지에서 경영학 및 회계학 학사 학위를 받아 졸업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사회를 우선시하는 풀뿌리 지역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운영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시민 모임에 참석해 왔습니다.

또 PS 195, IS 231 그리고 스프링필드가든 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축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을 돕기 위해 대략 20 년 전 로즈데일 축구 클럽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필드가든 고등학교 건너편에 “Hot Sheets” 모텔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자립의 원칙에 온 마음으로 동의하며 우리 지역사회에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로렐튼에서 자메이카 브리즈 레스토랑을 개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학교 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을 보충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이 부족합니다. 미술, 음악, 문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지원금의 큰 부분을 이를 개설하는 데 투자할 것입니다.

선거 날에 저에게 꼭 투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